

韓國 農村移出者들의 選擇性： 京畿道內 六個村落研究 事例

石 賢 浩

1. 序

韓國의 都市人口는 最近 數年동안 急激히 成長하여 왔다. 1970年 晴報에 의하면 全國市部의 人口는 約 1千 3百萬으로 全國人口의 43%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상당하는 1949年 晴報의 市部人口의 構成比는 단지 17%에 不過하였다. 16페이지의 〈表 1〉은 1949年 以來의 韓國都市人口의 成長局面을 보여주고 있다. 이와같은 都市人口의 增加는 農村으로부터 都市로의 人口移動이 상당한 部分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示唆해준다.

農村으로부터 都市로의 移住過程과 그 選擇性에 관한 數篇의 論文들이 專門學術誌에 發表되었다. 이들중 어떤 論文은 道間의 人口移動 및 農村—都市移住의 量과 率을 評價하는데 重點을 두었고 또 어떤 論文은 都市移住者들의 特性과 都市生活適應過程에 관한 研究에 관連한 것이었다. 그러나 移住의 選擇性에 관한 大部分의 研究는 이미 移住地에 定着하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質問하는 方法으로 이루어진 것이며, 단지 少數의 研究만이 原住地의 脈絡속에서 移出의 過程과 特性을 見하고자 試圖되었다. 그러나 移住者의 移出動機, 條件, 特性 等은 그들이 移出한 原住地의 全體共同體의 構造의 脈絡속에서 移出하지 않고 남아있는 居住者들과의 比較研究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適切히 理解될 수 없을 것이다.

本稿는 農村移出現象에 관連되는 몇 가지 社會學的 要素들을 分析코자 試圖된 것이다. 特히 이 研究는 京畿道內 6個 自然部落을 對象으로 한 繼續調查研究 資料를 利用하여 村落共同體內에서의 移住者들의 Personal network와 그들의 社會經濟的 特性을 移出하지 않고 남아있는 居住者들의 그것과 比較分析하는데 관連한다.

2. 資料와 研究方法

本研究의 資料는 李萬甲教授에 의하여 1958年과 1969年에 遂行된 6個部落의 社會構造에 관한 繼續調查研究의 副產物로 얻어진 것이다.¹ 이를 村落은 서울에서 약 10~15마일 떨어져 있는 京畿道 廣州郡에 位置하고 있으며 각각의 村落은 대체로 30내지 90程度의 비교적 小數의

1. 李萬甲教授는 1958年 12月 京畿道內 6個村落을 對象으로 韓國農業共同體의 社會構造에 관한 調查研究를 시험한바 있다. (그 報告書는 韓國農村의 社會構造라는 著書로 1960年 發刊되었다). 그 後 同教授는 1969年 12月에 農村共同體의 社會變動에 關心을 두고 同一地域에 對한 再調査를遂行하였다.

家口를 갖고 있는 하나의 hamlet을 形成하고 있다. 이곳의 住民들은 大部分이 農業을 主業으로 삼고 있으며 韓國의 다른 村落들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그들은 日常生活의 모든 面에서 서로 密接한 關係를 맺고 있을 뿐만 아니라 強한 集團歸屬意識을 갖고 있다.

이들 地域의 調查研究를 爲해서 構造化된 質問紙方法이 사용되었으며 1958年 1次調查時에 同村落에 居住하고 있는 346家口의 全體家口主가 面接되었다. 이 調查에 包含된 主要內容은 基本的인 人口學的 資料를 비롯하여 土地所有關係, 所得, 移住, 職業移動, 集團活動, 親族紐帶 및 近隣集團關係 等이었다.

1969年 再調查時에 1958年 調查當時 原住하고 있던 346家口 가운데서 82家口가 그들의 村落을 떠나 移住하였음이 發見되었다. 移出者들은 그들이 村落을 떠나기 전에 村落에 그대로 남아 居住하고 있는 사람들과 密接한 관계를 맺고 있었기 때문에 大部分의 移出者들의 移住地는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잘 알려져 있었다. 그들이 어디로 移住하였는가에 관한 몇 가지 자세한 情報는 그 村落의 里長과 그 밖의 관련을 맺고 있던 사람들로부터 얻었다. 移出한 82家口中에서 41家口는 서울로, 5家口는 다른 都市로, 23家口는 다른 農村으로 移住하였으며 13家口의 移住地는 밝혀지지 않았다. 18페이지의 <表 2>는 一次調查時부터 1969年 再調查時까지 移出하지 않은 家口와 移出한 家口의 移住地를 보여주고 있다.

1958年 調査와 1969年 追跡調查의 資料를 利用하여 論者は 移出家口의 몇 가지 重要한 特性을 移住하지 않은 家口의 그것과 比較할 수가 있었다. 그 比較는 personal network와 社會經濟的 特性에 관해서 이루어졌는데 personal network의 面에서는 近隣關係, 親族紐帶 및 集團活動의 參與가 檢討되었고 社會經濟的 特性的 側面에서는 移出家口의 移住의 經驗, 社會的 移動, 職業的 移動 等이 移出하지 않은 家口의 그것과 比較되었다.

移出者들로부터 그들이 그들의 村落을 왜 떠났는가에 관한 直接的인 情報는 얻을 수가 없었으며 1958年과 1959年에 시행된 構造化된 質問紙上의 資料에도 移出의 直接的인 動機나 理由에 관한 어떠한 情報도 提供해 주지 못하였다. 그러나 論者は 移出者들의 社會的 經濟的 特성을 移出하지 않은 사람들의 그것과 비교할 수 있는 第一次 調査時의 資料를 分析함으로서 그들이 처해있던 條件과 移出의 理由에 관한 情報를 간접적으로나마 얻을 수 있었다. 그리고 移出의 條件에 관한 附加的인 情報가 移出者와 진밀한 유대를 맺고 있던 사람들에게 물어서入手되었다.

3. 資料의 分析

1) 移出者의 Personal Network

大部分의 韓國農村村落은 地理的으로 孤立化되어 있고 小規模이며 잘 짜여져 있다. 하나로 짜여져 있는 村落의 境界內에 居住하고 있는 個人들은 서로 진밀한 接觸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² 그들의 社會的 經濟的 日常生活은 하나의 協同體系를 強要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近隣關係로서나 親族紐帶에 기초한 集團凝聚力에 의하여 크게 영향을 받아왔다. 따라서 村落에 居住하는 個人들은 하나의 強力한 集團歸屬意識을 갖고 있으며 이것은 村落人们的 個人行動에 強力한 영향을 주어왔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農村居住民들의 移出은 그들의 村落의 內的 連帶感에 영향을 주는 보다 큰 社會의 產業化와 都市化의 脈絡 속에서 일어나고 있으며 이러한 社會變動은 村落內의 成員들을 結束하고 있는 힘을 弱化시키고 있다. 農村居住民의 移出이 村落의 內的 連帶感의 弱化過程 속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事實은 農村으로부터 都市로의 移住現象에 관한 하나의 分析이 移出者들의 村落內外를 망라한 personal network과 크게 관련될 것이라는 觀點을 提示해 준다.

이러한 見解는 農村에서 都市로의 移住가 村落內의 近隣關係나 親族紐帶에 의해서 크게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假說로 이끌어 주고 있다. 왜냐하면 韓國農村村落의 大部分의 成員은 그 村落이 同族村이건 아니건 간에 強한 集團歸屬意識을 가져왔기 때문이다. 이 假說은 쏘시오메트리, 社會的 經濟的 參與度 및 親族紐帶 等과 같은 personal network을 分析함으로서 檢證될 것이다.

무엇보다도 먼저 村落의 連帶로부터 疏外되어 있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 보다 더 많이 移出하고 있다는 事實을 밝히고자 쏘시오메트릭 方法에 의하여 측정된 村落의 集團連帶感의 程度를 移出者集團과 移出하지 않은 集團을 比較하였다. Sociometric network은 “貴下는 마을사람들 중에서 누구와 가장 多情하게 지내십니까?” 하는 質問을 家口主들에게 물어 본 결과로 作成된 것이었다. 이 質問에서 높은 點數를 받은 사람은 强한 集團連帶感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간주되었으며 反面에 낮은 點數를 받은 사람은 弱한 集團連帶感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누어졌다. 19페이지의 〈表 3〉에서 보여주고 있는 바와 같이 “多情하게 지내는 이웃”으로 選擇받지 못한 總原住家口主 가운데서는 약 36%가 移出한 반면에 “多情하게 지내는 이웃”으로 選擇받은 家口主中에서는 단지 11%만이 移出하였다. χ^2 檢證은 移住가 여기서 測定된 바와 같이 集團連帶感의 程度와 有意味하게 관련되고 있음을 指摘해주고 있다. ($\chi^2=29.02: p<.001$)

이에 附加해서 다른 農村으로 移住한 사람들은 都市로 移住한 사람들 보다 더 낮은 點數를 記錄하였으며 移住地不明인 사람들은 모두가 그들의 前居住地였던 村落의 사람들로부터 한번도 選擇받지 못하고 있음이 밝혀졌다.

이 調查의 對象地였던 六個村落 가운데서 한 村落은 大部分이 同族集團成員으로 構成되어 있었다. 20페이지의 〈表 4〉는 同族集團成員이었던 40家口中에서는 단지 3家口만이 移出한 반면에 非同族集團이었던 家口中에서는 8家口나 再調查時까지 移出하였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同族村의 경우 同族集團의 成員이 아닌 사람이 同族集團에 속해 있는 사람들 보다 더 많

2. Robert Redfield, “The Folk Society”, *Journal of Sociology*, Vol. II, January 1947 and R. P. Dore, *Land Reform in Japan*, (Oxford University Press, 1959), Chapter XIV 參照.

이 移出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명백히 보여주고 있다.

村落內에서의 人間關係에 관한 위의 側面에 附加해서 품앗이, 契等의 接觸의 側面도 農村居住民의 移出과 관련될 수 있을 것이다. 韓國農村村落의 경우 大部分의 村落들은 地理的으로 孤立되어 있고 잘 짜여져 있으며 적을 뿐만 아니라 각각의 村落은 하나의 自給自足的 經濟單位로서 機能했었기 때문에 一定 村落에서 살고 있는 個人들은 그 村落內의 여러가지 集團活動에 參與해 왔다는 事實은 매우 보편적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村落內의 集團活動의 參與度는 移住에 관련되는 또 다른 要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21페이지의 <表 5>에서와 같이 集團活動에 적게 參與하는 사람들이 많이 參與하는 사람들 보다 더 많이 移出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품앗이의 경우 移住地別로 볼 때, 다른 農村으로 移住한 사람들은 都市로 移住한 사람들 보다 더 많이 參加하고 있었다. 이는 다른 農村으로 移住한 家口의 大部分이 小作農이었기 때문에 품앗이를 더 많이 하지 않을 수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判斷된다.

以上에서 集團連帶의 弱化過程속에서 集團活動을 통하여 그들의 이웃과 보다 적게 接觸하는 사람들은 村落의 紐帶로부터 疏外되어 더 많이 參與하는 사람들보다 더 많이 移出하는 경향이 있음을 보여주었다. Park에 의하여 發展된 移住와 관련하는 “限界人”³이라는 概念이 本研究의 諸發見에 適用될 수 있을 것이다. 即 우리는 그들의 共同體로부터 疏外되어 있는 사람들은 어떤 限界狀況 속에서 生活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를 限界人們은 “더 나은 生活條件”이라는 刺戟을 보다 더 잘 받아들일 것이다.

農村住民의 移出은 역시 村落外部와의 personal network에 관련되어 있을 것이다. 即 農村居住者의 移出은 移入地에 있는 사람들과의 傳統的인 一次的 人間關係, 特히 親族紐帶에 基礎한 人間關係가 介在함으로서 조장될 수 있다는 것이다.

韓國農村村落에는 都市地域에 살고 있는 別居者를 갖고 있는 많은 家族이 있다.⁴ 都市에 居住하고 있는 이들 别居者가 成功的으로 定着할 경우 흔히 그들의 남아있는 家族은 그 地域으로 移住한다. 이러한 形態의 家族移動을 “遲延된 家族移住”⁵라고 稱할 수 있을 것이다. 再調查 結果에 의하면 이와 같이 遲延된 家族移住를 한 家口의 比率은 都市로 移住한 全體家口의 約 30%나 되고 있다.

위의 過程과 비슷하게 보다 큰 親族紐帶가 一特히 擴大家族의 成員內에서 一역시 農村으로부터 都市로의 移住를 이끄는 경우가 있다. 例를 들면, 都市로 移住한 어느 한 家族이 富裕해지고 어떤 權力を 얻게될 경우 이 家族은 그들의 親族을 그들의 居住地로 移住케 하는데 影

3. Rober E. Park, “Human Migration and the Marginal Man”,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Vol. XXXIII, May 1928, pp. 881—893.

4. 李萬甲, “韓國農村社會의 變化” 이 論文은 亞細亞學術研究會가 主催하여 1970年 慶州에서 열린 韓國農村近代化의 諸問題에 관한 第四回 세미나에서 發表된 것이다. 同主題論文集 5페이지 참조.

5. John S. Macdonald & Leatrice D. Macdonald, “Chain Migration, Ethnic Neighborhood Formation an Social Networks”, *The Mibank Memorial Fund Quarterly*, Vol. XILII, No. 1, January 1964, pp. 89—90.

響을 준다는 것이다. 이러한 形態의 移住現象은 Macdonald가 지적한 바와 같이 “連鎖的 移住”⁶ 現象이라고 稱하여질 수 있을 것이다. James S. Brown과 그의 同僚들에 의해서 시행된 東部 Kentucky의 3個 近隣集團에 對한 事例研究⁷ 도 이러한 發見과 類似한 것을 보여주고 있다.

2. 移出者의 社會經濟的 特性； 社會的 移動의 經驗 側面에서

여기서는 移出過程이 移住者의 社會的 移動의 經驗과 一反復的 移住， 社會經濟的 地位移動 및 職業的 移動과 같은— 어떻게 관련되는가를 分析코자 한다.

Goldstein은 그의 Norristown 研究⁸에서 移出者들은 以前에 移入者들인 사람이 많을 것이라는 假說을 檢證한 바 있다. 이 研究에서 分析된 資料는 Norristown으로부터 移出은 以前數十年來 Norristown으로 移入한 사람들 가운데서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假說과一致하였다. 그는 이러한 現象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指摘하고 있다. 卽 “계속적인 移入과 移出은 많은 數가 同一人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移住者의 大部分은 一定時點에서 볼때 어떤 點에서든 共同體內에서 거의 關心이 없는 限界人이거나 共同體의 核心的인 社會組織에 結合하기에는 時間을 必要로하고 있음에 틀림없다.”⁹는 것이다. 移住者들은 이와 같이 그들의 共同體로부터 疎外되어 있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移住 그 自體가 反復的 移住의 한 自生的인 힘이 될 수 있는 것이다.

本考의 資料 역시 最近에 村落으로 移入한 사람들이 같은 村落에서 오래동안 居住해 온 사람들을 보다 더 많이 移出하였음을 보여주고 있다. 23페이지의 〈表 6〉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第2次 世界大戰以後에 村落으로 移入한 사람들은 가운데서는 35%가 移出하였는데 반해서 그 以前부터 居住하고 있던 사람들은 가운데서는 단지 17%만이 移出하였다.

다음으로 移住는 地理的 移動일 뿐만 아니라 社會經濟的 地位의 變化를 포함한다는 意味에서 移出者들의 垂直的 移動의 經驗을 檢討해 본다는 點이 重要할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農村으로 부터의 移出率은 上向移動을 경험한 사람들에서 보다 下向移動을 경험한 사람들 가운데서 더 높을 것이라는 하나의 假說을 제기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假說은 本 研究의 資料가 立證해 주었다. 23페이지의 〈表 7〉이 보여주는 바와 같이 現在의 社會經濟的 水準이 以前의 그것보다 비교적 낮아진 家口들은 上向移動을 경험한 家口들보다 더 많이 移出하는 경향이

6. 上揭書, p. 82.

7. James S. Brown, Harry K. Schwarzweller, and Joseph J. Mangalam, “Kentucky Mountain Migration and the Stem-Family; An American Variation on a Theme by Le Play”, Kenneth C.M. Kanmyer (ed.), *Population Studies ; Selected Essays and Research*, (Rand McNally & Company, Chicago, 1969), p. 232.

8. Sidney Goldstein, *Pattern of Mobility 1910—1950; The Norristown Study*, (University of Pennsylvania Press, 1958), Chapter 10.

9. Goldstein. “Repeated Migration as a Factor in High Mobility Rates”,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Vol. 19, No. 5, October 1954, p. 540.

있다.

그러나 이러한事實은 반드시 移出者들이 一般的으로 낮은 經濟成層에 속하여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24페이지의 〈表 8〉이 보여주는 바와 같이 移出者들은 거의 모든 經濟的 成層에 屬해 있는 사람들로 構成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移住와 職業的 移動과의 관계에 관한 문제로 方向을 둘려 보자. 都市로 移出한 家口와 移出하지 않은 家口의 比較는 移出하지 않은 家口들의 경우 大部分이 農業에 從事하고 있는 반면에 移出한 家口들은 非農家이거나 非農職業을 兼業으로 하는 農家인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24페이지의 〈表 9〉에서와 같이 都市로 移住한 全體家口의 단지 1/4정도만이 移住前에 農家였다. 그리고 그들의 前居住地에서 非農職業을 가졌던 移出家口들은 類似한 職業에 從事하는 경향이 있다는 事實을 發見했다. 이러한 事實은 그들의 移入地에서도 職業的 適應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이 移出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4. 要 約

國內人口移動은 傳統的으로 全體社會內에서의 한 人口調整의 過程으로 觀察되어 왔다. 人口調整 過程으로서의 國內人口移動은 諸 地域間에 存在하는 社會的 經濟的 不均衡에 의해서 기인한다고 通論된다. “移住의 理由가 무엇이든 간에 重要한 觀點은 一定 社會內의 어느 한 地域 또는 共同體가 經濟的인 没落을 겪고 있을 때 그 地域을 벗어나서 보다 繁榮하거나 約束하는 地域으로의 原住民의 移住는 社會의 經濟的 社會的 均衡을 發展시키는 役割을 한다.”¹⁰ 移住에 관한 이러한 見解는 主로 하나의 社會變動으로서의 移住現象을 관찰하고자 하는 機能的 解釋에 관련된다.

그러나 이러한 見解는 農村으로부터 都市로의 移住가 두 地域間의 社會的 經濟的 不均衡으로부터 일어난다는 點을 잘 뒷받침해주고 있을지도 移住의 過程 그 自體를 分析하는데 充分히 適切하지는 못하다. 本稿에서는 移住現象이 personal network의 脈絡속에서 일어나는 한 過程으로서 觀察되었으며 그것은 또한 以前의 社會的 移動의 經驗과 密接하게 관련되어 있음을 보았다.

이러한 觀點에서 移住의 過程에 관한 變數들이 다음 네 가지 要素들로 範疇化되었다.

- (1) 移出地內에서의 內的 連帶
- (2) 移入地의 居住民과의 人間關係
- (3) 移出以前의 社會的 移動의 經驗
- (4) 職業的 適應面에서의 移住를 為한 潛在能力.

移住의 過程에 관한 이들 變數들의 관계는 農村村落內에서의 移出者들의 特性과 移出하지 않는者들의 그것을 比較함으로서 각각 獨立的으로 檢討되었다. 그 重要한 研究結果는 다음과 같다.

10. Kammeyer, 前揭書, p. 192.

- (1) 農村村落으로부터의 移出者들은 그 村落의 內的 personal network에 있어서 限界的인 狀況에 있는 사람들인 경향이 있다.
- (2) 村落居住者の 移出은 村落의 連帶가 弱化되는 過程속에서 일어나는 반면에 移出者의 移住地에 定着하고 있는 사람들과의 人間的 接觸에 의해서 조장된다는 事實도 나타났다.
- (3) 村落에서 오래 居住하지 않는 사람들은 오래 居住한 사람들보다 더 많이 移出하는 경향이 있다.
- (4) 下向移動을 經驗한 사람들이 上向移動한 사람들 보다 더 많이 移住하는 경향이 있다.
- (5) 非農職業에 從事하거나 兼職農에 從事한 사람들은 農業에만 從事하는 사람들 보다 더 많이 移出하는 경향이 있다.

農村으로부터 都市로의 移住의 選擇性에 관한 過去의 大部分의 研究는 이미 都市로 移住하여 어느 程度 定着하고 있는 都市居住民을 對象으로한 調查에 의존하여 왔다. 이 경우 앞에서도 言及한 바와 같이 研究者들은 移出者들이 移住한 當時 移出地에서의 客觀的 條件들을 찾아내는데 困難을 겪게된다.

따라서 移住의 過程을 分析하기 위한 하나의 바람직한 研究方法은 移出地의 社會的 經濟的 脈絡속에서 繼續하여 居住하고 있는 사람들과 移出한 사람들의 比較研究에서 찾아볼 수 있다. 本稿에서는 移住에 관한 研究가 移出地로서의 村落속에서 위 두개의 集團을 比較함으로서 成功的으로 수행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方法으로 몇 가지 重要한 社會學的 要素들이 特히 人間相互關係의 面에서 移住의 過程과 密接하게 관련되어 있음을 밝혀 내었다.